국내 최초 국제공인 탄소중립 교육 학교 도입 추진

전주시정연구원, 넷제로아카데미와 공동 교육 협약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28일 넷제로아카데미(주)와 국내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증된 탄소중립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공동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28일 넷제로아카데미(주)와 국내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증된 탄소중립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공동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영국 맨체스터 카본리터러시 트러스트 재단의 탄소이해력 교육을 국내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도입하고, 전주지역 교사와 학생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탄소중립 교육과 전문 자격 취득 기회를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환경교육을 넘어, 기후 과학과 국제 탄소 규제,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강의(총 8시간)로 진행되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에게는 영국 CLT 재단에서 국제 공인 'Carbon Literate'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 자격증은 향후 진학 및 유학 준비 과정에서 ESG 활동 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넷제로아카데미(주)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주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재와 교육 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계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학교 교육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박희원 넷제로아카데미(주) 대표는 "본 교육을 전주시 교원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향후 전주시 공무원, 일반시민 등에게 확산돼 전주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가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 탄소중립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지자체가 된다"면서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글로벌 환경 이슈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암 예방 · 관리 중요성 홍보

전북대병원,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제18회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전북대병원 암센터 주 출입구 앞에서 도민들에게 암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암 예방의 날은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암 예방과 조기 진단·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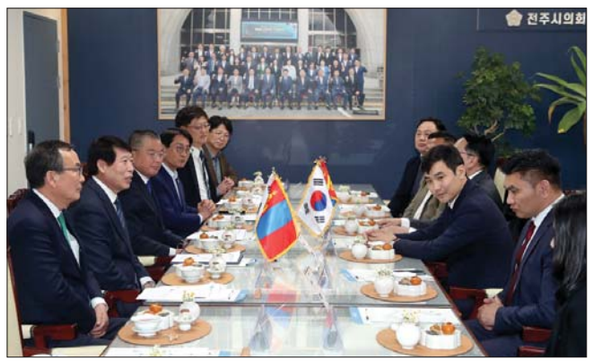
전북지역암센터(소장 정연준 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암 예방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에서는 원내직원 대상으로 암 예방 및 검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하는 이벤트가 마련됐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특히 전북대병원 암센터 앞에 준비된 홍보 부스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내원객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암예방 수칙 빈칸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암종별 안내 및 국가암검진사업 등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릿이 배부되는 등 많은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양종철 병원장은 "암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질병인만큼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암을 바로 이해하고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을 지켜 암의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역 암센터의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몽골 날라이흐구, 공동 발전 · 교류 협력 논의

몽골 날라이흐구 대표단, 전주시의회 방문 간담회 가져



전주시의회와 몽골 날라이흐구가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를 가졌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와 몽골 날라이흐구(구청장 나얀바야르 다시제베그)가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를 가졌다.

지난 28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몽골 날라이흐구 나얀바야르 다시제베그 구청장 등 6명의 대표단이 이날 전주시의회를 찾아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과 양 지역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문화와 관광, 신재생에너지, 노동자 일자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 방안이 논의됐다.

나얀바야르 다시제베그 구청장은 "전주시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상호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공동발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관광문화도시 발전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전주시의회는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릴레이 소통간담회로 '함께장터' 동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릴레이 방식으로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 프로젝트 참여를 이어간다.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전주시 주관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는 소비 촉진 행사다.

지난 28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 수영장부는 전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식당에서 부서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함께장터'에 동참한다는 목적도 있다.

특히 수영장부는 각 파트별 소통간담회를 총 4차례 개최해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릴레이 방식의 소통간담회는 부서 차원에서 기획됐으나, 공단은 그 취지에 공감해 공단 차원에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 1216' 트윈운영단 6기 활동 개시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마련된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을 함께 운영할 트윈운영단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6기 트윈운영단은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공간 홍보 △프로그램 제안 및 기획 △트윈 도서컬렉션(트윈세대 추천도서) 운영 등 12세에서 16세까지 트윈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된다.

트윈운영단은 첫 활동인 이날 3월 정기모임에서는 임명장 전달식에 이어 앞으로 활동 내용 안내 및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4월 정기모임은 오는 4월 26일 '우주로 서가 지도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조성된 '우주로 1216'은 도서관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12세부터 16세까지 연령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돼 만들어진 공간으로, 드로잉과 3D펜 등 다양한 창작활동과 더불어 악기연주, 주제별 분야의 독서 활동 등이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토·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우주로 1216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트윈세대의 전용공간으로 트윈세대와 함께 조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라며 "트윈운영단 활동을 통해 전환기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건강한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통한지 체험 '한지학당' 3기 교육생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전통한지 체험교육 프로그램 '한지학당'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교육은 4월 8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 공예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한지를 직접 뜨고 건조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제작 원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민화 기본 이론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로 진행돼 한지 제작의 기초부터 창작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